유통·화장품 한 주 딱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이마트, 총 42일간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 받는다(이데일리 2018.07.30)

이마트는 다음 달 2일부터 9월12일까지 전국 점포와 이마트몰을 통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대 사전 예약 중 가장 긴 기간인 42일간 진행될 예정. 이번 사전 예약 품목도 지난해보다 100여종 늘어난 290종을 준비. 이마트가 사전예약 기간과 품목을 대폭 늘린 이유는 다양한 판촉 행사를 이용해 실속 있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서임. 이마트는 2013년 추석 사전예약행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기간과 품목을 약 2.5배 늘림. 이마트는 선물세트 구매 고객에게 최대 40%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 또 구매 금액별로 상품권을 증정함.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던 이마트는 올해 10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최대 구매 금액의 15%를 상품권으로 지급함. 또 선물세트를 일찍 구매할수록 상품권 지급 비율을 높인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시행. 다음 달 2일부터 20일간 100만원 이상을 추석 선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상품권 혜택을 제공.

차석용 매직 7년 LG생활건강 몸집 두 배 커졌다(한국금융 2018.07.30)

차석용 부회장이 이끄는 LG생활건강이 연매출 7조원,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음. 중국의 K부티 열풍과 더불어 인수합병(M&A)을 통해 2012년대비 매출은 두 배 가량 증가. 실적도 13년 연속 성장하며 국내 화장품 선두업체의 자리를 넘보고 있음. 차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경쟁사들이 역진장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럭셔리 화장품의 차별화와 적극적인 중국사업 육성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아시아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내진설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지난 5월 구분부 LG 회장이 타계하면서 그룹을 이끌게 된 구광모 LG 회장을 뒷받침 해 줄 주력 계열사 부회장으로도 꼽힘. LG생활건강의 최대주주는 지분 34.03%를 보유한 (주)LG다. 특히 최대 실적을 이끌면서 차 부회장의 입지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 LG 부회장단에는 차 부회장을 비롯해 △권영수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이 속함. 재계 관계자는 "차석용 부회장이 구광모 회장을 뒷받침해 줄 일명 LG '6인의 부회장'으로 꼽힌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입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 등에 비해 주력 계열사는 아니지만 LG그룹 내 유통과 밀접한 계열사는 LG생활건강이 유일하기 때문에 주목도가 클 것"이라고 전함.

롯데, 백화점까지 정라... 중국 유통사업 접는다(한국경제 2018.07.29)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최근 중국 백화점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 중. 2008년 베이징에 첫 매장을 연 지 10년 만. 영업 중인 다섯 개 점포 가운데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텐진 두 개 점포와 웨이하이점 등 세 곳이 우선 철수 대상.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영업권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거나, 중도해지 등을 저울질 중. 나머지 두 곳인 선양점과 청두점은 백화점뿐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함께 있는 복합물의 일부이어서 일단 영업을 하기로 함. 선양점의 경우 백화점을 제외한 테마파크, 호텔 등 다른 '롯데타운' 시설물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음. 프로젝트를 완공한 뒤 팔거나, 백화점 자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롯데 관계자는 "백화점을 모두 철수할지, 한 곳 정도는 남겨 놓을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함. 롯데는 중국 롯데마트 매각·폐점도 한두 달 안에 완료하기로. 롯데는 사드 보복을 견디지 못하고 110개 매장 중 96개 점포를 운영 중인 화동법인과 화북법인은 지난 5월 매각함. 남은 14개 점포는 쪼개서 매각하거나 폐점할 계획. 롯데는 대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선 백화점, 마트, 면세점 등의 유통 매장을 확장하기로 함.

치솟는 인건비에 편의점 심야영업 포기 속출(한국경제 2018.07.29)

올해 전국 24시간 편의점 다섯 곳 중 한 곳은 심야 영업을 포기함. 매출이 적은 심야 시간에 발생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임. 서울 종로구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 김모씨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지만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전함. 결국 야간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야간 근무는 늘 김씨의 몫이었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은 CU 기준 2016년 10%에서 지난해 16%로 늘어난 뒤 올 상반기엔 17%가 됐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늘며 생기는 공백은 무인점포와 셀프형 점포가 메우고 있음. 무인점포는 입장부터 계산까지 무인화된 특수 점포로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고 계산도 셀프계산대에서 직접 함. 이마트24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은 현재 8곳.

시범 운영 결과 유인점포로 운영할 때보다 영업이익이 1.5~2.5배 더 늘림.

CJ헬로, 데이터사이언스팀 구축..빅데이터 사업 '본격화'(아주경제 2018.07.29)

CJ헬로가 빅데이터 관련 전담팀을 구축하고 하반기 신규 서비스 발굴에 속도를 냄. 케이블TV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주목하는 기술인 빅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모색한다는 복안.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헬로는 최근 홈엔터테인먼트본부 산하 조직인 데이터사이언스팀 구축을 완료.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6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CJ헬로는 빅데이터와 방송 연계서비스도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라 내다보고 전담팀을 꾸림. CJ헬로 관계자는 "데이터사이언스팀을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력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영입" "새로운 '금광'이라고 불리는 빅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유료방송업계를 선도하기 위해 올 초부터 내부에서 공을 들인 결과"로 설명. 데이터사이언스팀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CJ헬로가 해왔던 케이블TV 산업에서 혁신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인접한 신수주 4차산업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춤.

최악의 '폭염 장기화' 우려..에어컨·선풍기 여름 가전 '방긋'(아시아타임즈 2018.07.28)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최악의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 여름 가전 판매가 급증하면서 가전업계가 호황을 누림. 기상청 전망을 보면 올해 7월 전국의 평균 폭염일수는 9.5일. 폭염일수는 1994년 18.3일, 1978년 10.5일에 이어 3위에 오름. 다음 달 상순까지 지금과 같은 폭염이 이어진다면 1994년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음. 26일 업계에 따르면 무더위가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 6월 장마 영향으로 다소 시원한 날씨를 보여 에어컨을 구매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무더위가 지속되자 제품 구매에 나섰다. 실제, 전자랜드프라이스킹 판매 조사를 보면 7월 셋째 주(7월 16일~22일)의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함. 롯데하이마트도 에어컨 매출액이 전주 대비 95%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60% 상승함. 대우위니아와 대우전자도 7월 11일~7월 17일 에어컨 매출을 보면 지난해 7월 동 기간 보다 104% 늘었음.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16일엔 단 하루 동안 대우위니아와 대우전자 합계 7,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림. 선풍기도 불티나게 팔림. 신일산업의 공기순환기 제품인 '2018년형 서큘레이터'도 홈쇼핑 한회만에 매출 11억원, 1만대가 팔렸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국내 건조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함. 지난 3월 출시한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는 삼성 건조기 국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업종코멘트(7/30-8/3)

유통, 화장품: 최근 업종 주가는 전체적인 주식시장 영향과 함께 중국 소비 업종, 최저임금인상 관련 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을 반영함. 2분기 실적 확인 이후 하반기 가이드언스에 대한 조정 여부가 현재 주가에서 저점 매력 여부를 판가름해 줄 것으로 전망됨. 전주 호텔신라의 고성장은 확인된 반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3분기 둔화 우려의 전망이 더해짐. 급주는 GS홈쇼핑(7/30), 코웨이(7/31)의 발표가 예정됨.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증감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294.99	0.25%	롯데쇼핑	1.76	-0.49	-2.41	GS리테일	7.90	-16.19	-25.09
KOSDAQ	773.98	-2.23%	현대백화점	1.77	-3.07	-12.20	코웨이	1.09	1.98	6.81
유통업	429.93	1.91%	신세계	10.05	0.91	-16.92	아모레퍼시픽	-4.17	-10.05	-14.56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3.96	-1.13	-12.10	LG생활건강	-0.79	-9.08	-12.00
KRW/USD	1,119.60	-1.03	롯데하이마트	3.07	5.91	3.59	코스맥스	2.95	-10.29	-10.86
KRW/JPY	1,006.52	0.06	CJ오쇼핑	7.89	-15.96	-8.48	한국콜마	-3.44	-12.94	-18.33
KRW/CNY	165.46	-1.03	현대홈쇼핑	0.46	0.00	-2.22	토니모리	0.70	-5.26	-2.70
			엔에스쇼핑	-2.33	-4.20	-4.92	잇츠스킨	-3.47	-5.65	-7.22
			GS홈쇼핑	5.41	1.01	7.19	클리오	-2.73	-22.04	-23.84
			BGF리테일	9.70	-8.64	-13.00	코스메카코리아	-8.72	-19.41	-21.04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1.6	-4.8	-2.6	노드스트롬	3.3	3.4	8.0	텐센트	0.2	0.6	1.5
로레알	-1.1	-0.6	0.5	맥스&스펜서	-1.0	-3.1	6.7	알리바바	-0.5	0.8	0.3
에이본프로덕츠	9.2	6.9	-2.5	다카시마야	0.5	1.2	2.9	JD닷컴	2.7	2.8	3.9
상해자화	-0.5	-1.3	2.5	이온 몰	-0.4	-1.5	3.4	VIP샵	2.9	5.8	-1.2
크리스찬디올	1.1	2.9	3.5	세븐&홀딩스	1.0	0.6	-3.0	스타트투데이	-1.2	-2.4	-1.4
P&G	1.8	1.0	3.1	아마존	3.1	1.3	-0.2	이베이	3.7	2.2	5.0
고세	4.7	-8.4	-6.4	월마트	0.0	2.5	-4.9	메르카도리브레	3.2	-4.3	-4.6
에스티로더	-1.0	-0.5	-3.6	테스코	-0.3	-0.3	8.9	라쿠텐	0.4	-1.7	-5.9
LVMH	-0.2	2.7	3.1	타겟	0.0	3.8	4.9				
ULTA	-0.9	6.1	2.4	까르푸	0.9	-0.9	-0.6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현지통화)	8,491.00	209.50	1.55	39.61	371.20	80.09	22,330.00	139.72	306.00	251.88
시가총액(백만USD)	30,593	137,205	685	3,909	78,047	201,394	12,187	51,283	180,300	15,158
매출액 (백만USD)	2016 7,840 2017 8,964 2018 9,622 2019 10,482	27,578 29,400 30,979 32,601	5,718 5,716 5,746 5,785	890 953 1,150 1,385	43,721 49,331 54,100 57,769	65,299 65,058 66,858 67,764	2,029 2,468 2,809 3,006	11,262 11,824 13,646 14,566	41,617 48,167 54,610 58,592	3,924 4,855 5,885 6,696
영업이익 (백만USD)	2016 339 2017 717 2018 1,039 2019 1,253	4,342 5,079 5,657 6,034	322 273 376 383	37 54 104 138	7,874 9,263 N/A N/A	13,441 13,955 14,568 14,986	289 362 446 508	1,610 1,692 2,274 2,516	7,638 9,169 11,438 12,244	506 655 785 863
순이익 (백만USD)	2016 296 2017 203 2018 649 2019 810	3,438 4,046 4,592 4,902	-108 22 75 116	30 58 83 109	1,952 2,531 2,907 3,209	10,508 15,326 11,132 11,447	156 200 267 316	1,115 1,249 1,673 1,861	4,406 5,794 7,416 8,036	320 410 555 660
PER (배)	2016 36.8 2017 95.6 2018 46.1 2019 37.2	31.5 27.1 29.9 28.0	68.5 37.1 12.0 7.0	90.4 63.6 47.7 36.7	20.3 24.4 26.9 24.3	22.5 22.4 19.2 18.2	33.5 26.5 43.9 36.1	28.8 25.9 31.3 27.9	22.9 24.0 24.4 22.5	36.1 41.0 26.1 23.0
ROE (%)	2016 8.2 2017 5.6 2018 16.7 2019 18.1	12.9 14.5 15.0 14.9	N/A N/A N/A N/A	3.7 7.3 9.5 11.5	16.0 18.2 18.5 18.4	17.5 27.8 19.6 20.0	13.0 13.9 16.9 18.3	30.9 31.4 35.4 41.1	15.7 18.6 20.2 19.6	23.8 27.4 33.4 34.8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ULTA, 고세는 2019년만 추정치, 나머지는 2018년부터 추정치,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52.83	309.80	930.00	1,976.00	4,628.00	1,808.00	88.23	257.50	79.86
시가총액(백만USD)	8,843	6,592	2,978	4,049	36,952	880,496	260,353	33,006	42,576
매출액 (백만USD)	2016: 14,437 2017: 14,757 2018: 15,478 2019: 15,741	2016: 15,914 2017: 13,882 2018: 14,456 2019: 13,959	2016: 7,177 2017: 7,962 2018: 7,960 2019: 8,407	2016: 1,904 2017: 2,496 2018: 2,587 2019: 2,814	2016: 40,548 2017: 42,978 2018: 43,162 2019: 59,833	2016: 135,987 2017: 177,866 2018: 236,447 2019: 288,695	2016: 482,130 2017: 485,873 2018: 500,343 2019: 514,548	2016: 81,684 2017: 74,106 2018: 75,382 2019: 83,708	2016: 73,785 2017: 69,495 2018: 71,879 2019: 73,420
영업이익 (백만USD)	2016: 1,101 2017: 805 2018: 926 2019: 923	2016: 881 2017: 331 2018: 889 2019: 836	2016: 273 2017: 314 2018: 317 2019: 279	2016: 364 2017: 416 2018: 442 2019: 479	2016: 2,920 2017: 3,372 2018: 3,516 2019: 3,748	2016: 4,186 2017: 4,106 2018: 8,813 2019: 14,311	2016: 24,105 2017: 22,764 2018: 20,437 2019: 21,683	2016: 1,624 2017: 1,348 2018: 2,409 2019: 2,794	2016: 5,530 2017: 4,969 2018: 4,312 2019: 4,082
순이익 (백만USD)	2016: 600 2017: 354 2018: 437 2019: 588	2016: 613 2017: 153 2018: 610 2019: 560	2016: 198 2017: 193 2018: 212 2019: 182	2016: 204 2017: 264 2018: 274 2019: 293	2016: 1,334 2017: 895 2018: 1,626 2019: 1,924	2016: 2,371 2017: 3,033 2018: 10,686 2019: 15,374	2016: 14,694 2017: 13,643 2018: 9,862 2019: 13,830	2016: 209 2017: -53 2018: 1,581 2019: 1,767	2016: 3,363 2017: 2,737 2018: 2,934 2019: 2,796
PER (배)	2016: 14.6 2017: 13.6 2018: 16.9 2019: 15.2	2016: 16.4 2017: 46.8 2018: 11.1 2019: 11.7	2016: 13.3 2017: 16.9 2018: 16.1 2019: 16.1	2016: 14.8 2017: 13.8 2018: 16.7 2019: 13.8	2016: 24.7 2017: 40.2 2018: 21.8 2019: 19.1	2016: 152.7 2017: 256.6 2018: 82.4 2019: 57.8	2016: 15.1 2017: 15.4 2018: 24.1 2019: 18.5	2016: 56.8 2017: 234.6 2018: 16.9 2019: 18.3	2016: 15.4 2017: 12.7 2018: 15.5 2019: 15.1
ROE (%)	2016: 36.2 2017: 40.7 2018: 47.3 2019: 51.2	2016: 12.2 2017: 3.5 2018: 13.1 2019: 13.8	2016: 6.0 2017: 5.1 2018: 5.6 2019: 4.6	2016: 7.4 2017: 8.3 2018: 8.4 2019: 8.5	2016: 6.9 2017: 4.1 2018: 7.6 2019: 8.6	2016: 14.5 2017: 12.9 2018: 17.7 2019: 21.7	2016: 18.1 2017: 17.2 2018: 12.7 2019: 17.6	2016: 1.8 2017: -0.5 2018: 14.3 2019: 10.9	2016: 25.0 2017: 22.9 2018: 25.9 2019: 24.1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아마존과 맥스&스펜서는 2018년, 2019년 모두 추정치, 나머지는 2019년만 추정치,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스타트 투데이	이베이	메르카도 리브레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3.91	372.00	194.18	36.64	10.07	4,550.00	34.43	363.73	776.60
시가총액(백만USD)	12,783	450,507	497,325	52,553	6,636	12,772	34,070	16,061	10,035
매출액 (백만USD)	2016: 87,190 2017: 92,207 2018: 91,512 2019: 93,478	2016: 22,880 2017: 35,223 2018: 49,758 2019: 66,655	2016: 15,912 2017: 23,531 2018: 39,158 2019: 59,528	2016: 38,895 2017: 53,678 2018: 70,038 2019: 88,111	2016: 8,522 2017: 10,802 2018: 13,251 2019: 16,239	2016: 454 2017: 706 2018: 918 2019: 1,226	2016: 8,979 2017: 9,567 2018: 10,824 2019: 11,667	2016: 844 2017: 1,398 2018: 1,506 2019: 2,105	2016: 7,209 2017: 8,424 2018: 9,678 2019: 10,900
영업이익 (백만USD)	2016: 2,190 2017: 786 2018: 2,157 2019: 2,609	2016: 7,971 2017: 12,540 2018: 16,289 2019: 20,502	2016: 4,578 2017: 7,145 2018: 11,116 2019: 13,516	2016: -188 2017: -124 2018: 98 2019: 844	2016: 408 2017: 399 2018: 471 2019: 631	2016: 148 2017: 243 2018: 300 2019: 352	2016: 2,325 2017: 2,265 2018: 2,850 2019: 3,050	2016: 181 2017: 56 2018: 6 2019: 127	2016: 730 2017: 1,342 2018: 1,081 2019: 1,074
순이익 (백만USD)	2016: 826 2017: -600 2018: 873 2019: 1,050	2016: 6,188 2017: 10,594 2018: 12,388 2019: 16,391	2016: 11,242 2017: 6,493 2018: 13,267 2019: 15,436	2016: -573 2017: -23 2018: 915 2019: 1,686	2016: 307 2017: 289 2018: 461 2019: 612	2016: 100 2017: 158 2018: 207 2019: 247	2016: 7,266 2017: -1,016 2018: 2,292 2019: 2,398	2016: 136 2017: 14 2018: 23 2019: 96	2016: 350 2017: 986 2018: 649 2019: 656
PER (배)	2016: 21.6 2017: N/A 2018: 14.2 2019: 12.0	2016: 38.7 2017: 44.5 2018: 36.3 2019: 27.6	2016: 55.3 2017: 47.1 2018: 39.6 2019: 32.2	2016: N/A 2017: N/A 2018: 62.1 2019: 38.9	2016: 22.2 2017: 23.8 2018: 14.8 2019: 11.2	2016: 40.4 2017: 45.1 2018: 63.3 2019: 51.4	2016: 18.1 2017: 30.4 2018: 15.0 2019: 13.4	2016: 47.5 2017: 197.1 2018: 778.9 2019: 169.4	2016: 43.0 2017: 12.9 2018: 14.4 2019: 14.5
ROE (%)	2016: 7.4 2017: -5.2 2018: 6.8 2019: 7.9	2016: 27.9 2017: 33.2 2018: 28.0 2019: 28.1	2016: 39.4 2017: 17.6 2018: 19.5 2019: 18.3	2016: -11.8 2017: -0.4 2018: 3.0 2019: 6.6	2016: 43.9 2017: 19.5 2018: 16.0 2019: 18.6	2016: 55.5 2017: 72.7 2018: 63.8 2019: 64.7	2016: 84.9 2017: -10.9 2018: 29.8 2019: 32.2	2016: 35.5 2017: 3.7 2018: 6.8 2019: 20.6	2016: 5.7 2017: 16.2 2018: 9.9 2019: 9.4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스타트투데이는 2019년만 추정치, 나머지는 2018년, 2019년 수치가 추정치, 자료: Bloomberg